

신종 코로나 여파에 농업인 인력·경제난

농협 쌀소비 캠페인 등 농업인 관련 행사 10건 취소·연기 농번기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에 인력 공백 불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 감염증 파장이 전남 농촌까지 미쳐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등 농정당국은 주요 행사를 줄줄이 취소했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한 달 앞두고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는 비상이 걸렸다.

3일 농협 전남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열리기로 했던 농업인 관련 행사 10건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3일 오전 지역본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하루 세끼 공기밥 먹기운동-일삼공운동' 발대식을 열려고 했으나 지난 주말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우수 지역본부 직원을 시상하는 '2월 정례대회'와 이대훈 농협은행장 지역

로자가 많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남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5개 시·군에 배정한 외국인근로자는 11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 배정 인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32명), 장흥(28명), 나주(13명), 보성(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업에 들어온 인력이 전국적으로 3만여 명에 달하며 계절근로자와 미등록 이주자를 더하면 어림잡아 5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농어업 종사 인력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야하지만 농가의 절반 넘게(58.8%)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6400명의 외국인에게 농축산업분야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E-9 비자 신규 인력의 배정시기는 1월 2650명, 3월 1590명, 6월 530명, 9월 530명 등이다.

전남지역에서 농업부문 계절근로자(C-4)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7년 11명에서 이듬해 56명으로 4배 넘게 뛰었다.

농번기에 15~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김종팔(70) 농업회사법인 영암 녹색부화과(주) 대표는 "상근직 3명을 제외하고는 무화과 수확과 선별·유통 과정에서 중국인, 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며 "농번기가 끝나기 전에 신종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야하지만 농가의 절반 넘게(58.8%)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6400명의 외국인에게 농축산업분야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E-9 비자 신규 인력의 배정시기는 1월 2650명, 3월 1590명, 6월 530명, 9월 530명 등이다.

전남지역에서 농업부문 계절근로자(C-4)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지난 2017년 11명에서 이듬해 56명으로 4배 넘게 뛰었다.

농번기에 15~3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김종팔(70) 농업회사법인 영암 녹색부화과(주) 대표는 "상근직 3명을 제외하고는 무화과 수확과 선별·유통 과정에서 중국인, 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물량을 소화할 수 없다"며 "농번기가 끝나기 전에 신종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18.88 (-0.13)	↓ 금리(국고채 3년)	1.29 (-0.01)
↑ 코스닥	646.85 (+4.37)	↑ 환율(USD)	1195.00 (+3.20)

은행권, 신종 코로나 피해특별자금 지원

광주은행, 긴급경영자금 투입 NH농협·신한금융그룹 등 대출·금리 우대 등 대책 마련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코로나) 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3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이날부터 신종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신규 대출과 무상환 대출 연장을 각 500만원씩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 낮추고, 외환 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16개 그룹사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출금리 감면 규모는 최대 1.0%포인트이다. 신한카드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펼치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해준다.

앞서 하나은행도 최대 1.3%까지 금리 감면하며 3000억원 한도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라는 최고 1%포인트 이내, 농업인 최대 1.7%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 등도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로 입원·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입 실적에 있는 중소기업,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신규 대출과 무상환 대출 연장을 각 500만원씩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 낮추고, 외환 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16개 그룹사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대출금리 감면 규모는 최대 1.0%포인트이다. 신한카드의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펼치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최장 6개월까지 납입을 유예해준다.

앞서 하나은행도 최대 1.3%까지 금리 감면하며 3000억원 한도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숙박,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00억원 규모 특별보증을 보증료를 0.2%포인트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전남권 공공조달 지원 설명회 중기부, 11일 행사 취소결정

오는 11일 개최가 예정됐던 전남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취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KTX 광주역 무등산실에서 열리기로 했던 전남권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3월16일까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 협력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이다.

공공기관과의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주관기업을 지원하는 멘토 기업 및 소재·부품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원 유형은 혁신성장 과제와 소재·부품 과제로 구분된다.

혁신성장 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공정기술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생산력을 갖춘 기업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협력기업은 참여 신청 전에 기업 간 상생협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며, 지원을 받는 기간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오는 3~5월 중 발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동으로 봄기운 느끼세요" 3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점 직원인 임춘(41)을 앞두고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채소로 꼽히는 봄동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미등록 유명 상표 도용 산업재산권 조정대상 포함

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

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왔다.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업이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이 한정돼 미등록 유명 상표 도용 등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불가능하고, 조정위원이 40명으로 제한돼 기술

분야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위원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위원 3명으로 꾸리던 조정부를 1~2명 위원으로도 구성하게 돼 아이디어 탈취 등 분쟁 등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안전자산 금값 오르고 주가는 폭락

신종 코로나 확산에 금융시장 불안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3일 코스피가 한 때 21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포인트(0.01%) 내린 2118.88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9시께에는 전 거래일보다 1.60% 급락한 2085.13으로 출발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7포인트(0.68%) 오른 646.85로 거래를 마쳤다. 이 지수는 10.66포인트(1.66%) 내

린 631.82로 출발했으나 오전 중국 증시 개장 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2원 오른 달러당 1195.0원으로 상승 마감했다. 위안화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달러당 7.91원 위로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인 금값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48% 오른 6만200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8월29일(종가 6만540원) 이후 약 5개월여만에 최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3~4억 원에 가깝게 2억~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조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